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의 환경문제에 대한 접근시각과 그 한계

임형백* · 오해섭* · 김대희**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순천대학교 환경교육과

Viewpoints and Limits of Anthropocentrism and Ecocentrism to the Environmental Problem

Hyung Baek Lim*, Hae Sub Oh* and Dae Hee Kim**

*College of Agriculture & Life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Environmental Education, Sunchon National University

Summary

An environmental problem is the important issue of mankind. It should be treated main discourse in our period.

There are many assertions related to environment but they are not to be clearly classified because of miscellaneous paradigm. It is possible to classify into two category on the basis of human attitude toward nature and environmental problem. One of them is anthropocentrism and the other is ecocentrism.

This classification is helpful to understand various environmental discourses. Owing to different paradigm approach, anthropocentrism and ecocentrism have different concept for environmental problem. Anthropocentrism is powerful to the real life in behalf of economic rationalism. But ecocentrism is important for the only settlement of environmental problem in ecocentric perspectives. Therefore a new scheme for environmental problem solving is necessary through combining the merits of anthropocentrism and ecocentrism.

I. 서 론

환경문제는 현대 인류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이며, 환경과 환경문제에 대한 논의는 이 시대의 중요한 담론(discourse)이 되고 있다.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를 거치면서 인류가 사는 지구생태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회의와 우려가 제기되었고(Carson, 1962; Meadows et al., 1972), 1973년과 1974년 사이에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닥치자, 서구에서는

에너지와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자본주의적 경제성장이 한계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이 제기되었다(구도완, 1996). 이처럼 우리 사회의 기본적 동향을 바꿀만한 중요한 변화가 명백해짐에 따라, 환경대책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宇都宮 深志, 1993). 여기에다 물질적 풍요와 물질만능주의에 대한 환멸이 더하여 1967년에서 1974년 사이 영국과 미국에서 환경에 관한 관심이 급증하였고, 특히 1976년에는 미국 사회학회 내에서 환경사회

학 분과가 정식으로 발족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맥락에서 서구에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주제에 걸쳐 이루어졌고(구도완, 1996), 환경사회학이 사회학의 한 영역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환경사회학은 환경이 사회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라는 관점에서 환경과 인간 혹은 사회의 상호작용 등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전의 사회학이, 자연환경이 인간에게 미치는 규정력을 의도적으로 과소평가한 채 인간의 행위를 제약하고 동시에 촉발하는 요인을 단지 사회구조로 파악하는 것과는 달리, 환경사회학은 환경을 인간의 행위를 구속하고, 촉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한다.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치면서 우후죽순처럼 각양각색으로 나타났던 '환경문제와 관련된 주장들'도 1980년대에는 비교적 체계적인 모습으로 정리되어 등장하게 된다(Pepper, 1984). 과학기술의 합리성에 의존하는 기술지향주의와 이에 반대하여 생겨난 생태지향주의, 체제유지를 통한 점진적 개선을 주장하는 다윈론과 체제개혁을 통한 혁신적 변화를 주장하는 마르크스주의, 인간생태의 결정적 요인을 환경으로 보는 결정론과 이와는 반대로 인간의지에 의한 환경변화를 주장하는 자유의지론 등 각각의 관점에서 다양한 분과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환경론에 대한 이론적 검토는 미흡한 수준이며, 발전을 강조하는 입장과 환경을 강조하는 입장의 차이가 크고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이해가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환경론을 O'Riordan(1981)과 Pepper(1981)의 분류틀을 기초로 하여 크게 경제적 가치를 중시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관리적 입장을 취하는 인간중심주의(혹은 환경관리주의)와 생태적 가치를 중시하는 생태중심주의로 나누어 이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접근시각과 그 한계점을 규명하고자 한다.

II. 환경문제에 접근하는 기본 시각 (패러다임)

환경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고 오염에 대한 정의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환경문제 자체를 정의하는 것도 쉽지 않다.

또한 환경문제는 공간적으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원인과 결과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존재하고, 오염의 영향이 오랜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廣東運, 1992). 그러나 환경문제의 원인은 본질적으로 다양한 인간의 활동으로 인하여 자연의 자정능력(self-cleaning capacity)을 넘어서는 폐기물의 발생과 무분별한 자연자원의 이용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환경문제의 원인에 대한 접근 시각은 크게 1) 보수적 패러다임, 2) 자유주의적 패러다임, 3) 급진적 패러다임으로 분류된다.

1. 보수적 패러다임(다윈주의적 - 기능주의적 조망)

Durkheim(1858-1917)과 구조기능주의(structural functionalism)에 근거한 이들은 환경 파괴의 원인과 해결에 있어서 가치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들은 환경문제를 사회적 근대화 과정에서 일어난 서구가치체계의 예기치 않은 변동의 결과로 보면서, 어떤 사회적 가치 혹은 다른 문화적 요소가 제도로 하여금 자연환경과 부조화상태에 이르게 하는가를 밝힘으로써 환경오염과 자원희소성을 설명하려 한다.

Parsons(1951, 1977)에 따르면 산업사회가 민주주의와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지만, 경제성장, 풍요 및 구조적 분화에 부착된 긍정적 가치가 통제에서 벗어나 과도한 확장주의적 사회를 부추김으로서 환경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공공정책과 같은 자기규제적 메

커니즘에 의해 인간사회가 환경에 의해 자연적으로 부과된 제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수정함으로써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 패러다임은 산업화가 생활수준 향상에 필수적이라는 논리에 부딪쳐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전반의 산업적 기반을 저해하는 행동을 취하는 데는 주저하고 있다.

2. 자유주의적 패러다임(권력엘리트 혹은 관료적 엘리트주의)

Weber(1864~1920)에 바탕을 둔 이들은 환경문제의 원인규명에 있어서 권력과 지배에 일차적 초점을 맞추고, 정치적 권력과 지배를 사회의 가장 중요한 세력으로 보면서 환경문제를 지배 엘리트가 경제, 국가, 대중매체 및 기타 다른 사회제도에 대해 갖는 통제로 설명한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사회학적 분석은 두 가지 중요한 견해를 갖는데, 첫째는 환경개혁을 극소화하는데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 정부와 법체계를 지배함으로써 권력영역의 증가를 통해 확대된 이익이나 혜택을 계속 향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전형적으로 대기업이 국가의 의사결정에 대해 갖는 통제에 초점을 맞춘다(Crenson, 1971). 둘째는 환경파괴로 혜택을 얻는 사람들이 대중 설득수단, 특히 대중매체를 사용해서 그들의 목적과 행위를 정당화시킨다는 것이다(Morrison, 1973). 그러므로 사회의 경제조직을 정당화하기 위해 문화적 상징을 조작하는 것이 자유주의적 견해에서 볼 때 환경문제의 발생과 진전의 결정적인 메커니즘이며, 환경문제의 궁극적 해결은 기업의 정치적 권력을 박탈하고, 환경운동에서와 같이 관심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더 큰 권력을 획득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3. 급진적 패러다임

사회적 불평등의 원인을 체제의 주인공이며

동시에 구성분자인 자본가들의 축적욕으로 인한 사회적 메커니즘 때문이라고 보는 Marx(1818~1883)의 견해를 이어받은 이들은, 환경문제의 원인을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 계급의 행위의 결과와 자본주의의 확장주의적인 경향, 즉 자연자원을 점점 더 많이 소비하게 되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비합리성으로 간주한다(Packard, 1963; Papandrea, 1972; Molotch, 1970; Sweezy, 1972; Anderson, 1976; Singh, 1976; Schnaiberg, 1980). 따라서 이 패러다임은 환경파괴를 자본주의의 불가피한 속성으로 인식하고 자본주의의 파기를 환경문제의 해결로 인식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나 좌익사회도 다같이 인간의 자연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당연시하는 사회적 패러다임을 지녀왔다(김번용·오영석, 1997). 그러므로 환경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이미 몰락하고 있는 기존의 사회주의를 답습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일 뿐이다.

또한 급진적 이론가들은 하나의 중요한 예외적인 요소를 제외하고는 환경사회학의 자유주의적 패러다임과 많은 주장을 공유한다. 환경사회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정책결정이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환경사회학자들이 이들 엘리트의 지배를 억제할 수 있는 권력구조의 이동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반하여, 급진주의자들은 이같은 구조적인 전이(轉移)가 자본주의하에서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Humphrey와 Buttel(1982)은 환경문제의 본질적 원인이 자원집약적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생산제도에 있으며, 이를 '생산의 디딜방아' 혹은 '본래적 확장주의(expansionalism)' 라는 용어로 설명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확장주의적이며 자원낭비적인 속성을 가진 자본주의적 생산체제 자체를 해체하는 것만이 환경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Ⅲ. 현대 환경론에서의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

환경론은 이데올로기적 다양성을 가지면서도 상호배타성을 고집하지는 않기 때문에 단선적인 분류방법을 세우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 1) 인간중심적 ↔ 생태중심적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구분하는 기술지향주의와 생태지향주의, 2) 체제유지 ↔ 체제개혁적 관점의 차이에 따른 다원론과 마르크스주의, 3) 인간생태의 결정요인을 환경 ↔ 인간의지로 구분하는 결정론과 자유의지론 등이 있다.

그러나 크게 양분한다면 환경에 대한 인간이익을 우선시하는 인간중심주의와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생태중심주의로 구분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1) 기술지향주의와 생태주의, 2) 다원론과 마르크스주의, 3) 결정론과 자유의지론의 관점들을 논의하면서 이에 관련된 인간중심주의적 내용과 생태중심주의적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기술지향주의와 생태지향주의

이는 환경운동의 초창기에 나타난 사고방식으로서 이데올로기를 기준으로 한 분류방식이다. 환경론자들의 신념체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O'Riordan(1981)이 사용한 분석방법으로서 환경론을 크게 과학기술주의의 찬란한 미래를 낙관하는 기술지향주의와, 낭만주의와 생태학을 토대로 그다지 낙관적이지는 못한 미래관을 내세우는 생태지향주의로 구분된다.

이렇게 기술지향주의와 생태지향주의를 대립시키는, 도식적인 환경론의 이해는 현대환경론의 여러 주제에 대한 거의 모든 논의를 통해 현저하게 '공식적'인 것으로 등장하고 있다 (Pepper, 1984).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기술지향주의가 환경악화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며,

환경악화에는 반대하지만 포기할 것과 개선할 것을 구분하여 결과적으로 생존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가피한 환경악화를 전제로 효율적인 환경관리를 주장한다는 점(환경관리주의적 입장)이며, 근본적으로 환경보전보다는 인간의 경제적 욕구를 중요시한다는 것(인간중심주의적 입장)이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술지향주의(Technocentrism)

과학혁명과 자본주의의 성숙을 통하여 자연을 착취의 대상으로 보는 지배적 자연관이 지배적 이데올로기로 등장한 이유에 대해서 Glacken(1967)은 15세기말에서 17세기말에 인간을 자연의 통제자로 여기는 사고가 구체화되고, 18세기와 19세기에 이러한 '인간의 자연에 대한 힘'에 대한 인식이 증가함으로써 20세기에 이르러 인간중심주의가 등장한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White, Jr.(1967)도 중세의 유대 기독교 자연관(Judeo-Christian teleology)에서 생태학적 위기의 역사적 근거를 찾고 있으며, Commoner(1971)는 이러한 기술지향주의의 파괴적 성향에서 환경문제의 원인을 찾고 있다. 다른 측면에서 자연에 신성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이를 마음대로 개발하기 어렵지만, 자연이 단순히 창조주의 피조물로 여겨지는 경우에는 아무런 죄책감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을 변형하고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번용·오영석, 1997).

이들은 Pepper(1984)가 지적한대로 신고전주의 학파(neo-classical school)의 경제적 합리주의(economic rationalism)를 토대로 발생한 명백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이론이며, 따라서 '경제적인 법칙과 상응하는 자연과학의 법칙'을 동원한 객관적 분석에 의해 환경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하는 '환경관리주의'의 능력과 효율성에 대한 철저한 신념을 고수한다. 이러한 합리주

1) 따라서 여기서는 기술지향주의에 기초한 인간중심주의를 환경관리주의와 혼용해서 사용하였음.

의는 때때로 극히 비합리적인 맹목적 신앙(즉 성장에 대한 맹목적 신념과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에 대한 무비판적인 지지 및 자본주의의 무한한 진보 능력에 대한 고집스런 맹신)으로 이어질 수 있고(O'Riordan, 1981), 환경에 대한 기술적 관리를 주장하는 환경관리주의는 자원 환경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본 스스로 축적장애를 해결하기 위한 변화이므로 자본의 근원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환경파괴가 증가될 수 밖에 없다(최병두, 1992). 오늘날 이러한 기술지향주의적 환경론이 지배개념으로서 구사회를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특히, 자연과학적 연구를 신봉하는 '기술결정론적'(technological determinism) 견해에 따르면, 자연과학과 기술변화('과정')는 인간사회에 대하여 외생적인 것으로 나타나며, 사회과학은 오로지 이러한 변동과정의 영향과 그 영향에 대한 정책 대응을 분석하는 역할만을 갖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과학과 기술은 그 자체가 인간 사회의 측면들이며, 따라서 사회과학은 과학과 기술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하는가를 이해하기 위하여 기술변동의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제반 조건과 원인 그리고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O'Riordan은 기술지향주의를 보수적 기술지향주의와 진보적 기술지향주의로 나누고 있다.

① 보수적 기술지향주의(Cornucopians)

이들은 성장의 신화를 신봉하며 기술적·정치적·환경관리적 낙관론을 지나칠 정도로 내세운다.

기술을 통한 완전한 재생(recycling)이 가능하다고 믿는 이러한 기술낙관주의자들은 강을 만나면 다리를 만들면 되고, 문제가 일어나면 과학이 해결해 줄 것이며, 폐기물은 재활용될 수 있으며, 새로운 자원이 발견되고, 공해에 의한 위협은 신기술로 제거될 수 있고, 심지어 다른 별을 식민지화한다는 등의 끝없는 자원재활용이라는 공상에 젖어 환경위기가 임박했다는 생

각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원래의 상태대로 영구히 유지되는 물질은 없으며, 기술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확대지향적인 욕구가 생긴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일례로 오늘날 세계 에너지의 72%가 선진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반면에 개발도상국에서는 28%가 소비되고 있고, 유럽의 에너지 소비량은 세계 평균의 2.3배에 이르고 있으며, 미국은 세계 평균의 5.4배에 이르고 있는(UNEP, 1997) 현실은 이러한 주장의 좋은 증거이다.

② 진보적 기술지향주의(Environmental managers)

이들은 균형을 전제로 한 물질적 풍요를 중시하는 경제원칙을 배경으로 하며 조심스러운 사회개혁주의와 중재주의를 내세운다. 인류의 미래가 현재의 상태에서 인류의 생존환경을 더 잘 관리함에도 불구하고(따라서 지금과 같이 환경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더 급속히), 자원의 한계로 인하여 인구성장을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바로 '성장의 한계'(Limit to Growth)의 연원인데, '성장의 한계'는 성장의 한계를 통한 인류사의 멸망이 아닌, 세계적인 계획적 환경통제하의(Earth Summit at Rio, 1992)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의 모태가 되고, 나아가 후대의 환경관리주의의 기초가 된다.

2) 생태지향주의(Ecocentrism)

O'Riordan(1981)은 생태지향주의적인 현대환경론의 기원을 「'인간이 유용성만을 고려해 맺고 있는 자연과의 단순한 관계가 자연을 경외하는 관계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나아가 '신의 피조물간의 민주화'를 주장하는 '초자연주의'(transcendentalism)적 철학사조」에서 찾고 있고, Pepper(1984)는 과학적 기원은 Malthus(1766~1834)와 Darwin(1809-1882)의 생물학적인 과학이론에서, 비과학적

기원은 '자연과 인간의 동등성 또는 인간의 자연에 대한 종속성'을 표방하는 19세기의 낭만주의에서 찾고 있다. 이들은 정치적인 기준에 따라 보수적 생태지향주의와 진보적 생태지향주의로 구분된다.

① 보수적 생태지향주의(Self-reliance soft-technologists)

'성장한계론'과 '구명선(lifeboat) 윤리'를 포용하는 이 이론에는 주로 성장억제학과와 생태적 계획가들, 그리고 생활환경의 쾌적성을 보호하고자 주장하는 사람들이 해당된다.

이들은 현대의 대규모 집약형 기술 및 이에 따른 엘리트 전문가의 요구를 부정하고, 중앙집중적 국가권위와 비민주적 제도와 기구를 비판하면서, 물질만능주의는 그릇된 것이며, 경제성장은 최빈층의 근본적 요구를 채워주는 쪽으로 획기적 전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구증가가 정지되고, 질적 향상만 허용되어 기계·기구 등 자본재의 총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 이른바 정상상태(定常狀態, steady-state)를 주장하기도 한다(Daly, 1973). 나아가 환경에 대한 부하(load)를 최소화하면서도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과거의 물질적 소비집약적 활동들은 최대한 억제되고, 시간집약적 활동들이 최대한 장려되는 경제활동을 지향한다. 또, 경제성장을 통한 실업의 해소나 빈부격차의 해소를 용납하지 않고, 이러한 문제는 적극적인 분배정책을 통해서 정면으로 그리고 근원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주장한다.

일종의 성장한계론자들인 이들은 고전과 경제학자들이 인구증가와 수확체감의 법칙의 작용으로 경제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상태로 자동적으로 돌입한다고 생각한 데 반해, 인류가 살아 남기 위해서 인구와 생산량의 성장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Ricardo나 밀(J. S. Mill)이 정상상태를 경제성장과정의 불가피한 종점이라고 생각한 데 대해서, 이들은 그것을 모든 조직사회가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정상상태를 역사적·경제적 작용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돌입되는 상태로 인식하던 생존지향적인 정책이 지향해야 할 유일한 합리적 정책으로 인식한다 할지라도 이 정상상태란 자본주의의 운영법칙과 절대로 일치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축적을 목적으로 하는 확장주의적 성향을 가지며(Marx, 1957; Packard, 1963; Papandreu, 1972; Sweezy, 1972; Singh, 1976; Schnaiberg, 1980), 인간의 욕구자체도 점차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견해는 지구환경의 무자비한 파괴가 물고 을 대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성장이 중단된 자본주의 경제가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될 파국을 간파하고 있다. 성장이 멈추고, 실업자가 증가하고, 전보다 적은 재화를 소비하여야만 하고, 심한 경우는 꼭 필요한 재화마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상태를 인류가 환경보호라는 명목아래 인내할지 의심스럽고, 나아가 그러한 상황을 모든 계층의 인류가 공평하게 받아들일지도 의심스럽다.

② 진보적 생태지향주의(Deep Ecologist)

진보적 생태지향주의는 1960~70년대에 심각한 환경문제를 기술중심주의에 입각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환경개량주의(reform environmentalism)에 대한 반동으로 인간중심주의적인 태도로부터 새로운 생태적 접근 방식으로서의 전환을 모색하면서 발생하였다.

근본생태론(학)이라고도 불리는 이들은, 1973년 노르웨이의 과학철학자 Ann Nasee를 중심으로 본격화되었는데, 근본생태론(deep ecology)은 과학으로서의 생태학(ecology)에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대자연에 대한 규범 내지는 생물윤리를 포괄하는 철학 차원의 생태학이란 뜻이며, 'deep'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함축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Luke, 1988).

근본생태론자들(Ann Nasee, Bill Devall, Fritjof Capra, George Sessions, Gregory Bateson, Michael Tobias)은 생물중심적 평등(biocentric

equality)의 규범과 자아실현(self-realization)의 규범을 제시하면서 생태철학, 생태윤리, 그리고 인간과 합일된 자연 이미지를 바탕으로 하여 지배적이고 위계적인 사회를 비위계적인 협력의 사회로 전환시키자는 주장을 한다. 주로 급진적인 행동주의자나 계몽을 통해(혁명이거나 혼란이 아닌) 개인이나 사회조직의 가치관과 행동양식에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환경교육가와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자연이 본질적으로 중요하며, 생태학적 법칙이 사회와 인간을 지배한다고 주장하면서 희귀종보호와 경관보존 등 생물윤리를 증시한다.

2. 다원론과 마르크스주의

이는 사회과학적 이론에 의한 분류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환경문제에 관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설명하려는 것이다.

1) 기능주의에 기초한 다원론

이는 Durkheim과 구조기능주의에 근거한 보수적 패러다임(다원주의적-기능주의적 조망)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환경문제를 사회적 근대화 과정에서 일어난 서구가치체계의 예기치 않은 변동의 결과로 보며, 일반적으로 어떤 사회적 가치 혹은 다른 문화적 요소가 제대로 하여금 자연환경과 부조화상태에 이르게 하는가를 밝힘으로써-환경오염과 자원희소성을 포함하여-환경문제를 설명하려 한다.

즉, 산업사회의 가치가 개인주의, 보편주의 및 업적을 반영하고, 이에 따른 변동(성장)이 구조적 분화와 그에 관련된 많은 혜택(민주주의와 물질적 풍요)을 가져왔으나, 경제성장, 풍요 및 구조적 분화에 부착된 경제적 가치가 통제에서 벗어나 지나친 확장주의적 사회를 부추김으로서 환경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정책 등의 사회·경제 체계의 점진적

인 변화를 통하여 사회가 그것의 생존기반 내에 머물고, 환경에 의해 자연적으로 부과된 제약에 적용되도록 수정함으로써 환경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2) 마르크스주의에 기초한 급진적 견해

마르크스는 인간과 자연 관계를 자연 철학적으로 규정하는 작업을 자연이 인간에 이르는 전과정의 맥락에서가 아니라 인간을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인간과 자연의 이중적 관계라는 기본 변증법을 통하여, 일관되게 인간이 자연에 귀속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Kowarzik, 1981). 그러나 그는 근대 자연과학에 근거한 생산수단의 과학화를 통해 왜곡되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인식하였지만, 자연과학의 내적 구조와 이에 의해 변화되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드러내는 작업에는 진입하지 못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오직 동물과 식물만이 추상적인(객관적이고 불변하며 非역사적인) 개체군 유지법칙에 의해 구속되며 인간은 이를 벗어나는 존재라고 주장한다. 다만 환경을 변화시킬 만한 힘을 갖지 못하던 인간사회에선 자연이용의 물리적 한계 때문에 인구규모가 복지에 대한 중요한 제한인자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자연환경을 변화시키고 관리할 수 있는 힘을 갖는 사회에서는 인구규모는 자연적인 조건보다는 사회적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Pepper, 1984).

이들은 주류경제학과는 달리 가치와 가격이라는 개념을 구분한다. 이들에게 생산양식이란 생산력과 생산관계를 포괄하는 총체적 개념이며, 생산관계란 생산력에 대하여 사람들이 누리는 경제적 지배력의 관계라고 보통 정의되는데, 쉽게 말하면 생산요소에 대한 소유권관계를 의미한다. 이들은 노동을 통한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인간과 자연의 일체성을 강조하면서, 자본주의 사회의 환경문제를 자본주의라는 특정 생산양식과 결

부된 체제상의 모순에 기인한 현상으로 보며, 따라서 체제의 근본적 개혁이 없이는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환경문제를 자원을 소유한 계급과 이의 소유를 원하는 계급간의 이해관계의 대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Molotch, 1970; Anderson, 1976; Schnaiberg, 1980).

다시 말하면, 환경문제를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 계급의 행위의 결과로서, 그리고 자연자원을 점점 더 많이 소비하게 되는 자본주의의 확장주의적 경향의 결과로 본다. 그러므로 점진적인 사회개혁을 통해서도 결코 환경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며, 오직 사회체제 전체의 근본적인 개혁으로서만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즉, '환경에 대한 학대'와 '인구문제'는 사회주의적인 생산양식 하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이다(Pepper, 1984).

그러나 일부 생태지향주의자들이 성장 자체를 거부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사회주의 실현의 전제조건으로 '생산력의 완전한 개발'을 꼽는다. 계급분열은 불충분한 생산력이 갖는 사회의 불가피한 모습이며, 사람들이 그들의 미래사회를 단순히 물리적 욕구의 만족 이상으로 여기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급을 위한 성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Baret Brown, 1976).

3. 결정론과 자유의지론

이는 Cotgrove교수가 옥스포드 대학에서 강의록을 통해 발표한 분류방법으로서 인간의 자연관에 따른 근본적인 철학적 입장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다. 결정론과 자유의지론을 양끝으로 하는 직선사이에 조야한 환경결정론, 과학적 결정론, 기계론적 생태계 해석, 가능주의(possibilism), 자연에 대한 인간우위, 환경학과, 실존주의, 유기적 체계론과 현상학이 위치한다.

결정론에 가장 가까이 위치하는 조야한 환경

결정론으로부터 자유의지론에 가장 가까이 위치하는 현상학으로 갈수록 자연과의 관계에서 인간의 중요성은 증가하며, 그 마지막 끝인 자유의지론에 이르면 인간의 의지에 거역하는 자연은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극단에 이르게 된다(Pepper, 1984).

1) 결정론(Determinism)

환경결정론적 전통은 B.C 5세기에 히포크라테스의 논문 「대기, 물, 그리고 장소」(Peri, Aeron, Hydration, Topon)에서 처음으로 표명된 후, 칸트(Kant), 로이터(Reuter), 버클(Buckle), 라첼(Ratzel), 데몰린스(Demolins), 타탐(Tatham)의 글들에서 부적절한 일반화를 수반하는 조야한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20세기초에 이르러 경험적인 자료들에 의존하는 과학적 환경결정론(Ellsworth Huntington and Griffith Taylor et al.)이 나타난다.

이러한 전통으로 생태학이나 기타의 사회과학 분야에서의 '환경결정론'의 전통은 과학적으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환경이 모든 인간행동을 규정한다"(G. R. Leuthwaite; Johnston, 1981 재인용)는 관점을 강조한다.

초기의 환경결정론은 인간의 건강에 대한 지형과 기후의 영향이 강조되었으나, 19세기에는 더욱 다양하게 발전하여 자연자원(특히 식량자원)의 한계로 인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인구규모의 제한 또는 Darwinism의 영향 아래 어떻게 자연법칙에 의해 인간의 위치가 결정되는가 하는 포괄적 문제까지도 다루어졌다. 현대에 이르러 생태학적 관점은 인간의 위치를 자연속에 존재하는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에 의존하고 그 법칙에 따라야만 하는 것으로 명백히 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환경론'을 '환경결정론'(environmental determinism)과 동의어로 착각하는 오류는 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이와 같은 오류를 그대로 둔다면, '사회-경제

적 개혁이 없이도' 환경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사회-경제적 개혁이 없이는' 결코 환경문제가 개선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극단적인 결론에 말려들 것이기 때문이다(Pepper, 1984). 자연 자체를 인간에 의해 형상이 부여되고 지배되는 것으로 보는 기술지향주의도 결정론에 가깝다. 기술지향주의가 자연에 대한 인간의지와 행동의 자유를 강조하기는 하나, 인간을 독립변수로 자연을 종속변수로 인식하는 이원론적 시각을 통하여 인간과 자연의 근본적인 분리를 주장하기 때문이다(Chorley, 1973).

이러한 결정론에 대하여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결정론이 사회 개혁과 계몽을 통해 자연과의 조화를 창조하는 인간능력에 대한 비판론과 운명론을 낳는다고 비판한다. 마르크스주의는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지 않고 주체와 객체로 이분된 지배관계도 인정하지 않으므로,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고 자연 또한 인간의 일부이며, 따라서 자연과 인간의 일체성은 신비로운 현상학적인 것(자연이 단순히 인간의식의 연장으로 취급된다)이 아니고 구체적인 인간의 노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Pepper, 1984).

2) 자유의지론(free will philosophy)

'실존주의'(existentialism)같은 자유의지론적 철학은 인간의 실존과 자연의 객체적 존재를 명백하게 대립시켜서 극단적으로 강조한다. 이 주장에 따르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의식과 자유의지라는 혜택을 부여받게 되므로 이를 소유하고 있지 못한 객체들로 구성된 이질적인 세계로부터 스스로를 유리시킨다(Bullock and Stallybrass, 1977; Pepper, 1984 재인용).

실존주의는 인간의 개성과 자유의지를 강조하는데, 인간은 그 개성과 독창성으로 인해 자연과 구별되므로 어떤 과학적 체계의 보편적 법칙으로도 설명될 수 없는, 근본적인 선택의 자유를 갖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러한 선택의

자유에는 자연과 함께 하거나 또는 이에 대해 싸울 수 있는 자유까지도 포함된다.

실존주의에서 인간의 실존을<세계 안의 존재>로서, 이 세계의 상황 속에 정위(定位)시킨 것은 Heidegger이다. 나아가 Heidegger의 실존철학과 Husserl의 현상학(phenomenology)적 방법을 결합하고 프랑스풍의 실존주의를 심화시킨 것은 Sartre(1943, 1946)이며, Tuan(1972)은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적 입장을 받아들여 미래에 인간은 자유의지를 통해 다른 존재들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했다. 인간은 자연과 달리 자연법칙에 의해 일괄적으로 지배되는 않으므로 그의 운명에 따라 그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도 진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IV. 환경문제에 대한 두 가지 접근 시각과 그 한계

환경문제에 대하여는 통일되지 않은 다양한 의견대립이 있지만, 환경문제의 폐해를 인정하는 데에는 견해가 일치하고 있고, 결국 인구와 자원간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데에도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현대 환경론의 주된 관심사인 '인구와 자원의 비율에 관한 쟁점'이 1798년에 Malthus에 의해 제기된 이후, 신말머스주의자(neo-malthusian) Hardin(1964)은 이 문제를 도덕적 차원으로까지 발전시켰고, 이후 많은 학자들(Ehrlich, 1969; Allaby, 1980; Capra, 1985)의 주장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그러나 그 접근방법에 있어서는 환경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인간중심주의와, 이에 반하여 환경이 존중되어야 하는 이유를 철학적 기반위에서 제공하려는 생태중심주의의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Dobson, 1990). 물론 인간중심주의적 입장을 견지하는 경제학자들(Helm and Pearce, 1991)도 자연자원의 고갈과 환경오염 현상에 관련된 법칙을 규명하고, 적절한 환경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환

경문제에 대한 경제학의 핵심적 과제 중의 하나라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다.

이러한 현대 환경학의 자연과 인간관계에 대한 인식의 차이점은 <표 1>과 같이 요약된다.

<표 1> 환경학의 자연과 인간관계에 대한 인식의 틀

구분	인간과 자연의 관계	주된 관심	인식의 내용
환경경제학	인간의 자연에 대한 우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의 자연에 대한 지배와 이익을 우선시. • 환경문제의 원인은 자원의 불완전한 배분과 체제의 비효율적 운영.
환경사회학	인간과 자연을 동등하게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적 변동이 끼치는 사회적·문화적·경제적 영향 • 인간이 만든 사회구조와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자연을 파괴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과 인간 사회의 관계에 관한 사회학적 시각에서 환경문제를 해석. • 환경문제의 원인을 사회구조에서 찾는다. • 환경은 인간의 행위를 제약·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사회적 행위에 의해 변화될 수도 있는 구조.
사회생태론	인간과 자연을 동등하게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류사회의 모든 위계질서를 제거한 생태공동체의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문제를 사회구조 및 이론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사유(생태문제는 사회문제에서 나온다). • 생태문제를 변증법적 자연주의(dialectical naturalism) 또는 생태적 변증법으로 해결(생태적인 사유에 진화론적인 관점을 부여). • 생태문제를 동양의 신비주의와 결합하려는 시도에 대해 비판적(정치형태나 삶의 형식이 달랐던 시대에서 형성된 동양적 이론들은 당면 문제를 설명할 수 없다). • 환경문제의 원인은 인간이 습득한 자연법칙에 대한 지식을 자연을 지배하는 데 사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인간을 이용하고 지배하는 데에 사용하기 때문.

인간중심주의적 입장에서는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하여금 환경의 이용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시장을 통해 치르게 하는 해결방안을 주장한다. 적절한 조세를 부과하여 準최적상태로나마 미리 정해진 자의적 기준에 따라 환경의 질을 유지하자는 주장(Baumol and Oates, 1971)이 이러한 예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말하

는 효율이 '한정된 자원' 들로부터 '최대의 효과'를 달성함을 의미하며, 환경문제에 대한 논의는 개별 경제주체의 경제행태를 다루는 것이므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가 응분의 가격을 치르게 되고(Polluters Pay Principle, PPP), 반대로 환경의 개선에 기여하는 행위가 응분의 가격을 받게 되는 일은 정부규제나 지원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최대의 효과'라는 효율성을 약화시킨다는 점이다.

생태중심주의는 이러한 인간중심주의의 태도에 반대하며 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려 한다. 생태중심주의는 매우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으나 결국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균형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의 자연에 대한 지배와 이익을 우선시 하는 인간중심주의(환경관리주의)와 대립하고 있다. 따라서 생태중심주의는 환경파괴에 분노하며 자연순환사상에 적극적이고 환경보호에 철저하다. 그러나 생태중심주의의 근본적 한계는 오히려 여기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경제적 합리성에 입각한 인간중심주의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점에 있다.

생태중심주의는 환경에 대한 관리적 입장을 내세우는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한다. 이를테면, '생명의 윤회(rotation)'에 바탕하지 않고 인간의 기술발달추세에 의해 이른바 '성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따라서 최대생산을 계속하며, 이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을 이전보다 잘 관리함으로써 성장을 계속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근원적인 비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생태중심주의는 자연환경에 위해가 안 되는 '최소생산'의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인간중심주의는 고전파경제학의 방법론적 기원인 공리주의에 근거한 것이며, 이들에게 있어서 환경은 또 하나의 재화인 것이다. 이들의 세계에서 기업은 이윤과 비용에 의해서 움직이며, 개인은 자신의 효용과 후생을 위해서 경제에 대응할 뿐이다. 따라서 생태중심주의의 '최소생산'과 인간중심주의의 '최대생산'은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이다.

인간중심주의(환경관리주의)는 환경문제에 대한 관리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는 환경보전보다 인간의 경제적 요구를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경제적 풍요가 모든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즉 현재의 생산방식 및 소비지상주의의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고도,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환경기술을 개발하면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김재영 외, 1996).

생태중심주의가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하기 위해서 기술지향주의와 환경관리적 산업주의를 그 대상으로 삼았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기술지향주의에 근거한 인간중심주의가 생태중심주의의 비판을 받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생명의 윤회'와 '최소생산'의 규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비판받아야 한다는 것은 문제의 초점을 회피해 가는 것이다. 오히려 인간중심주의는 자본을 폐지할 생각이 없으며, 환경의 관리조절을 무기로 삼아 자본을 확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비판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비판이다. 생태중심주의의 최소생산의 개념은 이 세계가 자본주의적 체제를 유지하는 한 결코 현실의 영역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생태중심주의가 인간중심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바로 인간중심주의의 최대생산에 대해, 생태중심주의가 사상과 도덕의 논리(최소생산)로서가 아니라 이들이 주장하는 경제의 논리를 이해하고 그 한계를 지적할 수 있을 경우이다.

그러므로 생태중심주의가 인간중심주의의 근거인 신고전학파의 최대생산, 즉 자본의 확대 재생산과 축적경향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비판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다. 왜냐하면 인간중심주의는 항상 보다 나은 상태에로의 변화를 이루기 위한 길을 모색하며, 경제학이 생각하는 적정상태는 매우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반면 생태중심주의가 인간중심주의를 배격하고 추구하는 최적상태는 기본적으로 자연 상태에서 형성된 평형이 유지되는 상태이므로 생태학이 추구하는 것은 변화가 아니라 현상유지 또는 한편으로 구시대적 상황으로의 회귀라는 점에서 현실과 괴리된다.

V. 결론 - 상호보완성의 모색

환경문제의 발생은 근본적으로 인류가 인간의 자연에 대한 지배와 이익을 우선시 하면서, 자연의 자정능력을 넘어서는 폐기물을 발생시키면서 이익을 향유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 환경논의에 있어서 인간중심의 기본적인 관점들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주체와 객체, 의미와 정신, 인간과 동물,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화(또는 사회)와 자연 사이의 이원론적 대립을 기각하고 극복하지 않는 한 이는 공허한 메아리일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인간중심주의(환경관리주의)와 생태중심주의는 둘 다 환경악화에 의하여 고취되었지만, 환경악화를 치유하는 그들의 전략은 전혀 다르며(Dobson, 1990),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가 있다.

생태중심주의는 사회적·정치적 생활양식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주장하지만, 인간중심주의는 현재의 생산 및 소비의 가치 또는 양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고서 환경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생태중심주의는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지구의 환경과 생태계 보존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지만, 인간중심주의의 시각으로 보면 그 의도의 출중함에도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경제학 또는 경제현상과 충돌할 수 밖에 없다.

즉, 생태중심주의의 세계는 기존의 인간중심주의의 세계에 비하면 파격이 될 수 밖에 없다. 소규모공동체를 선호하며, 최소생산을 경제의 생산법칙으로 하며, 동양의 선사상이나, 심지어 노장사상 같은 명상의 세계를 가치관으로 추구하기도 하며, 진정으로 자연과 일치하려고 노력하며, 생명의 윤리와 윤회를 사색하며, 생태계파괴의 최소화를 통해서 인간사회가 자연의 한 과정에 동화할 것을 요구한다. 그 결과 인간의 삶의 질과 생활수준이 떨어질 것이지만, 이것은 인간사회 그리고 그것의 연장인 자연생태계의 계속을 위하여 필연적으로 감내하

여야 하는 인간의 숙명이기 때문에 경제적 합리성은 생태적 합리성으로 대체되어야 하며, 물질적으로 저하된 인간의 삶의 질은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의 질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필요하다면 그들은 가치관의 변화(정신적 풍요)를 위한 교육을 강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동양의 '선'과 '명상'의 세계까지 끌어들이려고 시도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생태중심적인 것 또한 중국적으로 생태계 내의 인간에게도 이로운 것이고, 인간의 무한한 물질적 욕구가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자원을 고갈시키는 현재의 사실에 의하면 이러한 생태중심주의 사상은 근본적으로 옳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생태중심주의는 최소생산을 강조하며 인간에 의한 생태계의 파괴를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 의한 환경파괴의 근원을 오직 심정적인(물질욕구, 산업주의 등) 요소로 돌림으로서 인간중심주의(경제적 합리성, 경제적 불균등, 경제학)를 배척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즉, 생태중심주의가 지향하는 축소생산과 경제적 이익의 포기는 현 상태와는 양립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축적을 목적으로 하는 확장주의적 성향을 가지며 (Marx, 1957; Packard, 1963; Papandrea, 1972; Sweezy, 1972; Singh, 1976; Schnaiberg, 1980), 인간의 욕구자체도 점차 증가하며,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환경오염은 자본주의 국가 못지 않게 발생하였던 역사적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생태중심주의는 지구환경의 무자비한 파괴가 물고 올 대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성장이 중단된 자본주의 경제가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될 파국을 간파하고 있다.

그러나 생태중심주의는 유한한 지구에서의 <성장의 한계>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인간중심주의를 벗어나 자연세계에 대한 윤리적 관심에 기초하여 근대 합리주의적 가치관 및 정치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동을 촉구하였다. 이의 영향으로 경제가치를 최우선시하는 경제학적 가

설에 대한 비판이 경제학자 중에서도 나오게 되었고(Forrester, 1971), 환경이라는 요소가 경제학의 중심적인 요소로서 부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던 환경을 경제학의 대상으로 위치지웠고, 아직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어 현실적인 해결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으나, 적어도 환경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고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적인 태도에 대한 성찰의 기회는 제공하고 있다.

즉, 우리가 사는 시대의 주어진 여건으로서 는 <산업사회>속에서 생태중심주의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사회>의 추구에는 많은 딜레마가 있지만, Dobson(1990)이 주장하듯이 생태중심주의는 우리의 행동규범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 환경적 인식에 지적인 영감을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기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술중심주의적 사고를 견제한다는 측면에서 적어도 최소한의 존재이유를 갖는다.

그러므로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는 각자의 주장만을 강요하지 말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면서 현실에 기초한 상호보완적인 입장에서 차츰 환경친화적인 물질적·정신적 기반을 조성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서로의 주장만을 강요한다면 두 가지의 입장은 영원한 평행선을 달리게 될 것이다. 인간중심주의(환경관리주의)가 자연에 대한 경제적 관점에서 사용가치만 인정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선택가치와 존재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자신의 영역으로 받아들이는 것, 생태중심주의가 현실을 인정하면서 가치관의 변화를 위한 교육을 강조하면서 서로의 상호보완과 접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 등이 이러한 기반조성의 초석이 될 것이다.

VI. 참고 문헌

1. 구도완. 1996. 한국 환경운동의 사회학, 문학과 지성사.
2. 구승희. 1995. 에코필로소피, 셋길.
3. 그룬트만-라이너·박만준·박준건 옮김. 1994. 마르크스주의와 생태학, 동녘.
4. 김번용·오영석. 1997. 환경 행정론, 大永出版社.
5. 김재영 외. 1996. 환경정치와 환경정책, 삼우사.
6. 노스-더글러스 C·이병기 역. 1996. 제도·제도변화·경제적 성과, 한국경제연구원.
7. 돕슨-앤드루·정용화 옮김. 1993. 녹색정치사상, 민음사.
8. 드라이제-존·최 승 외 역. 1995. 환경문제와 사회적 선택, 신구문화사.
9. 막스-칼·김수행 譯. 1989. 자본론 I(下), 比峰出版社, p. 897.
10. 문순홍. 1992. 생태위기와 녹색의 대안, 나라사랑.
11. 백 일. 1995. 지역과 환경의 경제학, 한울.
12. 복친-머레이·문순홍 옮김. 1997. 사회 생태론의 철학, 숲.
13. 슈미트-코바르칙·이종관 옮김. 1994. 자연에 관한 철학적 탐구, 철학과 현실사.
14. 申義淳·資源經濟學. 1995. 博英社.
15. 싱-나린다르·박덕재 역. 1986. 經濟學과 環境危機, 比峰出版社.
16. 宇都宮 深志·강성철·홍용우 공역. 1993. 개발과 환경의 정치학, 大旺社.
17. 廣東運. 1992. 환경경제학, 比峰出版社.
18. UNEP·김재범 등 역. 1997. 녹색공동체를 위한 실천, 나남출판.
19. 이정진. 1994. 녹색경제학, 한길사.
20. 이필렬 외. 1995. 교양환경론, 도서출판 따님.
21. 최병두. 1991. 한국의 공간과 환경, 한길사.
22. _____. 1992. 자본주의사회와 환경문제, 한울.
23. 카머너-배리·송상용 역. 1980. 원은 달려야 한다, 전파과학사.
24. 페퍼-데이비드·이명우 외 옮김. 1989. 현대환경론, 한길사.
25. 험프리 크렉 외·양종희·이시재 공역. 1995. 환경사회학, 사회비평사.
26. Allaby, M. 1980. "Malthus reinterred," The Ecologist, 10(6/7), Jul/Aug/Sept, 195-199.
27. Alford, Robert R., 1978, "Paradigms of social structure and change." Unpublished manuscript, Board of Studies in Sociology, University of California at Santa Cruz.

28. Anderson, C. H. 1976. *The Sociology of Survival: Social Problems of Growth*. Homewood, III.: Dorsey Press.
29. Baumol, W. J. and Wallace, E. Oates. 1971. 'The Use of Standards and Prices for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in Peter and Allen V. Knees, eds., *The Economics of Environment*, MacMillan, London, pp. 54-55.
30. Bookchin, M. 1980. *Toward and Ecological Society*, Black Rose Books.
31. Brown, L. R. et al. 1991. *The State of the World*, New York: W. W. Norton & Co.
32. Capra, F. 1985. *The Turning Point*, London: Flamingo, p. 227.